

# 21대 총선, 선거구획정 시한 또 넘길라

여야 대치에 국회 공전  
선거법 개정 논의 중단  
3야, 오늘 대응책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마련도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21대 총선 날짜가 내년 4월15일이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안 마련의 법정시한은 오는 3월15일이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 시한까지는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다.

하지만, 문제는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가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 등의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먼저 확정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위는 정개특위에 지난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획정기준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에 시한을 넘긴 18일 까지도 기준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이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최근 "사실상 법정기한 내 획정안 마련이 어려워져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 공동으로 책임져야겠지만, 근본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있다"며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진행 중이라 선거법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게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계속표류 중인 선거법 개혁 논의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 회동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정개특위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여성단체 간담회에서 심 위원장이 여성단체대표들로부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여성 1000인 선언'을 전달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하지 못한 것은 여야 대치에 따른 국회 공전,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이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등 여야 정치권이 선거제 개혁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국회의 선거구획정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개특위는 현 정국상황과 맞물려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최근 "사실상 법정기한 내 획정안 마련이 어려워져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 공동으로 책임져야겠지만, 근본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있다"며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진행 중이라 선거법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게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계속표류 중인 선거법 개혁 논의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 회동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인 천정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 등 총 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특히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선거제 개혁안 등을 3월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당에 당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선거제 개혁안 등을 3월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이번주 선거개혁안 제시 안 되면 비상결단”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18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이번 주 국민이 납득할만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또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정치권이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 개정여성행동’ 10개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한국당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지만, 합의를 실천하려는 어떠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한 시한이 지난 15일이다.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고 있는 무법 시대를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또 빈손 ... 기약 없는 국회 정상화

한국당 특검·국조 요구 여전...민주 “조건 없는 소집”

여야는 18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비롯해 '5·18 망언 의원 징계', '손혜원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간 쟁점 사안에 대해선 나중에 계속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조건없이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대화를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야당은 여당에 합리적 조건을 얘기했음에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가 김태우 특검 요구를 접고 손해원 국정조사라는 최소한의 요구만 했는데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여당에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국회를 소집에 2월 내에 처리해야 할 법들이 많은데 안타깝다”며 “최종 합의는 못 이뤄졌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정확한 입장을 확인한 만큼 협상을 이어나가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당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협상에 들어가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신경전을 벌였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은 국회 소집을 함께 해서 삼일 위법안 심사를 하면서 이견이 있으면 좁혀가는 방향으로,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자”며 “다만, 5·18 망언 문제는 한국당도 함께 참여해 분명하게 처리를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회 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뒷전에 두고 있다”며 “여당은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한국당은 하루속히 국회에 들어와 모든 것을 의논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이해찬 “김경수 지사 내일 보석 신청”

민주, 창원서 예산정책협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제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고 새로운 도약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팩토리(공장)로 만드는 새로운 혁신을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남은 조선, 자동차 산업이 부진해 여러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남도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잘 구상해 말해주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남도의 남북내륙고속철도 사업을 거론,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드디어 사업시행단계가 시작됐다”며 “기본 설계를 빨리해서 조기 착공하도록 당에서 최

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현재 8대 2인 지방세와 국제비율을 2020년에 7대 3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조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현직도지사의 전격 구속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였다”며 “20일쯤 구속적부심을 하게 될 텐데, 재판을 진행해도 도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상식인데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후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 발언을 ‘보석 신청’이라고 정정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4·3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구성

더불어민주당은 18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공관위)를 구성하고 선거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관위 설치와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고 홍영표 수석대변인이 서면 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공관위 위원장을 맡았고, 소병훈 조직부총장, 김현 미래부총장, 강준식 전략기획위원장, 권미혁 원

내대변인, 민홍철·전혜숙·백해련 의원,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주당은 또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위원장 김경협 수석 사무부총장), 중앙당 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전 의원)도 설치했다.

현재까지 보선이 확정된 곳은 경남 창원 성산과 경남 통영·고성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번 주 중으로 첫 회의를 열고 공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싸가지 없는...” 한국당 이학재 폭언 논란

민주 인천 서구 정인갑 구의원 “집회장서 수차례 겁박”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인갑 인천 서구 구의원이 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인천 서구갑)은 “폭언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 구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제가 ‘싸가지 없는 XX’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구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라 광역 폐기물소각장 증설 반대 등과 관련한 한 집회장에서 정 구의원이 주최측으로 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폐기물소각장 증설 문제와 시타타워 착공 지연,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난 뒤 이 의원의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

는 것이다.

정 구의원은 “‘싸가지 없는 XX’에 ‘어린놈의 XX’, ‘가만 안둔다’라는 무서운 말을 수차례 들어야 했다”며 “우리 서구

에서 구청장을 두번이나 하시고,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네 번이나 맡으신 3선 국회의원님께서 왜 그렇게 저를 겁박하셔야 했을까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내가 발언한 것은 총 세가지다. 우리 서구에는 ‘제가 잘못했다. 제가 책임지겠다. 제게 해결하겠다.’ 말하는 정치인은 없고 남 탓만 하는 정치인만 있다. 수도권 매립지가 연장될 때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은 어느 정부의 장관이 있는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의원은 “정 의원이 그 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정치인은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난하길래 행사가 끝난 후 따로 만나 그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맞지만 폭언은 한 적은 없다”며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정 구의원이 자신의 이야기가 나에게 심리를 기렸으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한국 형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땅+건물+태양광 = 2년6개월(현금투자회수가능)  
선로걱정없는 한국형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읍 잔여분 3기

2019년 10월 준공예정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왕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